

# 도시철도 바뀌 변경?...임기내 착공 헛바퀴

(2018년)

시, 고무바퀴서 철제로 변경 검토...차량설계 다시 할 판

지하철 2호선 오락가락 의사결정에 착공 지연 우려

광주시가 술한 논란 끝에 확정된 광주도  
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 차량 바뀌  
변경안을 다시 검토하면서 유장현 광주시  
장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선과 방식을 놓고  
일어난 술한 논란 끝에 광주도시철도 2  
호선 건설방식이 지난 2월 지하 중심형으  
로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기본설계가 막바  
지 진행중이다.

차량 형식은 애초 기본계획대로 고무바  
퀴 형태로 결정했지만, 시가 최근 재검토  
를 하고 있다.

고무바퀴로 된 고무차륜은 진동과 소음  
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쇠바퀴를 단 철제  
차륜은 최고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무바  
퀴 방식은 특정 1개사만의 독점이란 점이  
논란이 돼 재검토 배경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시장과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들은 5일 경기 의정부, 인  
천공항의 도시철도를 시승한 뒤 6일에는  
충북 오송의 도시철도도 시승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에도 서울, 경남 김해, 부  
산 등의 도시철도를 시승하고 대구와 인천

의 경전철 공사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번 시승은 각 지역 도시철도, 차량 형  
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려는 취지이지  
만 차량 바뀌 결정을 위한 검토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는 조만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각각 장단점을 분석해 바뀌 형식 변  
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도교통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 운영  
하는 자기부상열차를 광주에 도입하는 방  
안을 시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계획  
을 전면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시  
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오락가락한 의사결정으로 시간  
만 허비해 비난을 받은 시가 다시 차량 계  
획 변경을 검토하면서 윤 시장이 약속한  
임기 내 착공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계획 일부 수정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차량설계를 변  
경해야 한다면 추진에 필요한 시간도 길어  
지기 때문이다.

시는 총사업비 2조1675억원을 들여 운  
시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을 세웠다. 임기 내 착  
공이 불발되면 시민은 또 갈등을 지켜보  
야 할 지 모른다.

윤 시장은 최근 임기 전반기를 평가하는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  
안이 지연된 것과 관련, "시민이 답답해한  
것을 잘 알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  
향"이라고 해명하고 후반기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 1년 기념행사 다채

내일 기념공원 제막식·14일 3만명 초청 공연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1  
주년 기념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 31사  
단에서 U대회 기념공원 제막식을 갖  
는다. 기념공원은 31사단이 영내 3500  
여㎡에 잔디와 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U대회 개최식과 폐막식에 참석했던  
31사단 장병들을 기념하고, 대회 당시  
31사단이 지원했던 내용 등도 전시된다.

오는 14일에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에서 광주U대회 성공개최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1년전 광주U대회 성  
공 개최의 원동력이 됐던 참가선수

와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체육인,  
인근 주민 등 3만여명을 초청했다.

1부 행사에서는 광주U대회 당시 경  
기장 활용에 도움을 줬던 전남과 전북  
등 인근지역 지자체장들에게 감사장  
이 수여되고, 참가선수 및 조직위 관  
계자들의 행사 개최 당시 에피소드나  
느꼈던 점 등을 듣는다.

2부 행사는 인순이, 홍진영, 비투비,  
마마무 등 유명가수 공연과 함께 청소  
년과 중장년, 노년 층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 최원일기자 cki@

##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 투입

정부, 2018년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부가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을 투자  
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  
환경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나  
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  
자호텔에서 주영환 산업부 장관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  
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  
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  
지 분야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2조 5000억 원(ESS 4조 5000억 원, 스  
마트미터 2조 5000억 원, 전환경비전 2

조원 등 투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1300  
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발전  
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  
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  
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이전 대책 발표와 함께 기존 4.5%에서  
5.0%로 높였다. 2020년 당초 의무비율  
은 6.0%였으나 7.0%까지 확대했다.

/연합뉴스

'혈세로 짓는 적자 관광문화시설' 1면에서 계속

국비 128억원, 군비 176억원, 도비 10  
억원 등 314억원을 들여 조성한 홍길동  
테마파크는 입장료가 무료다. 다만 야영  
장, 한옥, 카라반 등의 이용료를 받고 있  
는데, 주말이면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20만명이 찾았지  
만, 운영수익은 1억1188만여원으로, 운  
영비 4억3200여만원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캠핑장과의  
경쟁으로, 낮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온 서모(38)씨 가족 3명은 2  
박3일 야영장에서 머물면서 데크 임대  
료 2만원, 이용료 1만2000원(하루 1인당  
2000원) 등 3만2000원을 냈다. 서씨는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해 홍길동테마파  
크를 찾는다"며 "먹을 것은 모두 광주에  
서 구입해 오기 때문에 거의 지출이 없  
다"고 설명했다.

시·군이 직영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이 파견되는 형태로 사실상 공공기관 운

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경영이  
나 마케팅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들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개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당수  
시설에 공무원들이 파견되면서 '자리 만  
들기'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설 관계자는 "반드시 수익을 내  
야 한다는 절실함 같은 것이 없기 때문  
에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신규 투자가 없어 앞으로 수익  
이 감소할 우려도 높다"고 토로했다.

투자 전 추정하는 예상수익도 거의 빛  
나고 있다. 130억원이 투입된 진도타  
워는 15만명이 입장할 경우 1억3000만  
원의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입장객이 20만8133명으로 예상  
을 넘어섰지만 5912만여원 적자였다.

94억8425만여원 전액을 군비로 지은  
장흥 정남진전망대 역시 3만1494명 입  
장 시 2533만여원의 흑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3만3666명이 입장했  
음에도 4851만여원이 마이너스였다.

## 中 불법조업 근절될까...광주서 한·중 어업협상 열려

정부, 중국에 단속선 상시배치·어획물 운반선 차단 요구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을 위한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  
가 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한중 양측 수석대표인 배종인 외교부 동  
북아국 심의관, 천승평 중국 외교부 영사  
국 부국장을 비롯해 양측 수산당국 및 해  
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  
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중국어  
선들이 진입해 우리 민정경찰이 퇴거작전  
을 벌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열  
린 것이어서 협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  
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NLL 인접수역에서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NLL로 진입할 수 있는 주  
요 수역에 중국 측 단속선의 상시배치와  
어획물 운반선 진입 차단,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계도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와 관련한 얘기도 거론됐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광주에서의 회의 후 중국 측 인  
사들을 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경)로 안내  
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사  
진과 영상자료를 활용해 브리핑을 했다.  
중국 측 인사들에 직접 불법조업의 심각성  
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서해 불법조업 안됩니다"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에 중국 측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 사드 부지, 사실상 제2미군기지 수준

한미 '작전기지 규모' 검토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인 사드(THAAD) 배치 부지의 규모를 작  
전기지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부  
지의 규모와 역할이 작전기지 성격에 따  
를 경우 '사실상 제2미군기지'를 만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지난 3월부터

가동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가 배치될 지  
역에 대해 '작전기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최  
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작전기지의 역할을 하려면 상당한 규모  
의 부지가 필요하므로 주한미군 기지 밖에  
새로 조성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 배치 장소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울 재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 초록색 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한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공공기관·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무료! 시험비, 자재비, 인쇄비, 운송비, 숙박비 등 없습니다.)

###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언지역 대지 132평 8차세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대가 18억원
- 북구 동림동 동림자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6평 ▶ 최저 거대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이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담양군 대덕면 2층전원주택 건물 56평 토지 262평 주변환경양호 건물상대최상 ▶ 감정이 2억 최저가 2억

####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이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 66평 토지 47평 ▶ 감정이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서구 쌍촌동 2층단독주택 건물 62평 토지 55평 위치좋은 한국병원인근 ▶ 감정이 1억5천 최저가 1억1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도로변 점포 전시장 및 대리점점합 토지127평 건물120평 투자적합 ▶ 최저가 3억3천2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